

# 회원사 분리발주 수주현황

## (2011년 2월 21일~3월 20일)

(5억원 이상)

공고명	실수요기관	개찰일시	낙찰금액	업체명	대표자	회원사 지역
본리중학교 태권도실 전기온수 보일러 설치 기계설비공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청 본리중학교	2. 22	2,123,400	(주)대광엔지니어링	이영우	대구
슬러지건조처리시설 보일러 화학세관 및 개방검사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	2. 28	4,910,000	우양기공(주)	이희유	인천
천안중학교 교직원 편의시설 증축 기계설비공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3. 11	4,797,000	일봉기계설비(주)	박한교	충남



### 무한지식

#### 파운드(£)와 달러(\$) 기호의 유래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낯선 기호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기호일 때는 더욱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호가 바로 'Lb(£)'가 아닌가 싶다. 'Lb'는 '파운드(pound)'라고 읽지만 아무리 봐도 그 철자를 짐작할 수가 없다. 무게 단위인 kg이나 g, 길이를 뜻하는 km나 m는 철자를 생각하면 표기 방식이 이해되지만 파운드는 왜 뜬금없는 기호를 쓰는 것일까?

그 까닭을 추적해보면 이렇다. 'Lb'는 고대 로마에서 '파운더스(poundus)'와 같은 중량 단위로 쓰인 라틴어 '리브라(libra)'의 머리글자를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균형(혹은 저울)'을 뜻하는 천칭좌 별자리에서 나온 단어인데, 곡물의 양을 잴 때 사용한 단위였다. 지금으로 따지면 1리브라는 335.9g 정도인데 이것이 영국에 전해지면서 파운드가 되었다. 물론 무게도 바뀌었고 단어도 달라졌지만 'Lb', 즉 리브라의 약자만은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원래 단어와 기호가 서로 안 맞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미국의 달러화를 표시하는 기호인 '\$'이다. 달러의 철자는 'dollar'인데 이것을 표시할 때는 'S'자에다 줄을 그어 '\$'라고 한다. 달러라는 단어의 어딜 봐도 'S'자는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그 'S'는 어디서 나왔을까? 달러를 이렇게 표시하게 된 기원은 명확하진 않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북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스페인 사람들이 머리글자에서 'S'자를 따왔다는 설이다. 자신들이 스페인에서 왔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S'자를 넣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설로, 미국 독립전쟁 당시 멕시코 지방의 8리알 스페인 은화를 '18'로 표시하던 게 변형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중 가운데 '8'자는 'S'자로 변형되고, 양쪽의 숫자 '1'은 안으로 모여 'S'자를 관통하는 선으로 변형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 표시라는 것이다.

그 밖에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인 솔리더스(solidus)에서 'S'자를 따왔다는 주장도 있다. 솔리더스는 콘스탄틴 왕이 제정한 로마의 금화이자 실링(shilling)과 페니(penny)사이엔 갖는 사선(shilling mark)을 뜻하는데, 이것 역시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돈의 단위가 달라지고 단어도 바뀌었지만 표기 방법은 그대로 남게되었다는 설이다.

이러한 가설들이 아직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 속에도 길고 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